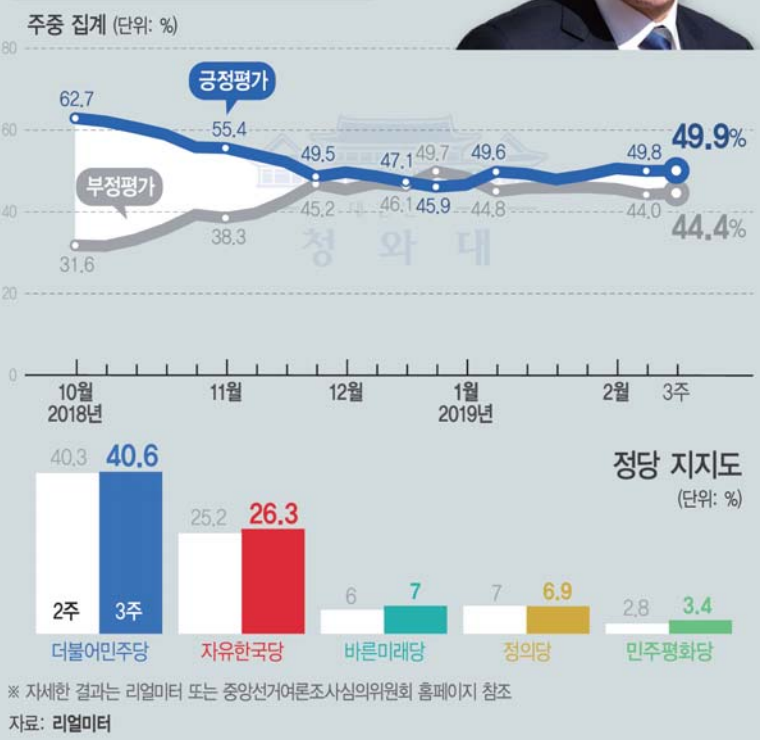


文 지지율, 소폭 오른 49.9% 20대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

민주 40.6% · 한국 26.3% · 바른 7% · 정의 6.9% · 평화 3.4% 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2월18~20일, 전국 성인 1,513명, 응답률 5.1%
표집오차 ±2.5%p(95%신뢰수준) / 의뢰기관: tbs



간접계(49.8%)에서 50%대가 무너졌지만, 이번 조사에서 소폭 상승하는 등 50%대 부근에서 약보합세를 띄고 있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성화 노력 지속, 각계각층과의 소통 강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긍정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도 "실업률 상승, 자영업자 부채 증가, 경제·민생 불안 요소, 유해 사이트 차단으로 촉발된 인터넷 검열 논란과 '이이돌 외모 지칭' 논란 등이 부정 요인으로 작용해 보험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5.9%p ↑·68.9%), 대구·경북(2.9%p ↑·42.6%), 경기·인천(1.3%p ↑·52.7%)에서 각각 상승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1.5%p ↓·43.0%), 대전·세종·충청(1.0%p ↓·45.1%)에서 소폭 빠졌다. 연령별로는 30대(9.9%p ↑·67.0%)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20대(4.3%p ↓·41.5%)와 40대(2.4%p ↓·59.0%), 50대(1.5%p ↓·45.6%)에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특히 20대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다.

정당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2월 2주차 주간집계 대비 0.3%p 상승한 40.6%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26.3%), 바른미래당(7.0%), 정의당(6.9%), 민주평화당(3.4%)이 뒤를 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소폭 상승했다. 사흘 전 같은 조사 대비 0.1%p 오른 49.9%를 기록한 것이다. 50%대 부근의 약보합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8~2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13명을 상대로 조사해 21일 공개한 2월 3주차 주중집계(95% 신뢰 수준·표집오차 ±2.5%p·응답률 5.1%)에 따른

면 전체 응답자의 49.9%가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정평가는 44.4%(매우 잘못함 26%, 잘못하는 편 18.4%)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5.7%로 집계됐다.

공정평가가 0.1%p 올랐지만 부정평가가 역시 0.4%p 늘어 긍정·부정평가 간 격차는 5.5%p로 다소 좁아들었다.

사흘 전 공개된 2월 2주차 주

정동영 “북미회담 전기삼아 남북 평화통일로 가길”

상해 독립유공자 문헌 민공묘소서 밝혀



민주평화당은 21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중국 상해 민공묘소를 찾아 국내 송환되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의 묘역에 헌화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1일 "북미 정상회담을 전기삼아 남북이 정상적 국가의 관계로 바뀌고 그걸 바탕으로 추진·단계적인 평화통일의 길로 갈 수 있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중국 상해 민공묘소에서 "그것이 이 곳에서 100년 전 독립운동을 했던 선조들의 뜻을 받드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를 비롯한 평화당 지도부는 전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중국 상해를 방문했다. 3·1운동 및 대한

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한 것이다. 이들은 둘째날 첫 일정으로 국내 송환되지 않은 독립유공자들이 묻힌 민공묘소를 찾았다.

이곳은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지낸 박은식 선생을 비롯해 독립운동가 신규식·노백린·안태국·김인진 선생이 묻혀있는 곳이다. 1993년 8월5일 한중수교 이후에는 이들의 묘역이 국내로 송환됐고 상해 민공묘역엔 묘비만 남아있다.

또 민공묘도 외국인 묘지에는 상

해구국묘단 단원이었던 애국지사 김태연의 묘역과 임시정부 요인 중 한명이었던 이덕삼 지사의 유해가 안장돼있다. 김태연 지사의 유해는 오는 4월께 국내로 송환될 예정이다.

평화당은 이들의 묘역에 헌화하면서 애국지사들의 정신을 기렸다.

정 대표는 "애국 지사들이 하늘에서 독립된 조국이 하나되지 못하고 분단된 채 형제 간 반목하고 대결하는 세월을 너무 오래 지내는데 대해 안타까워하리라 생각한다"며 "100년 전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만들어 조국 독립과 자유를 꿈꾸고 실현해왔던 우리 독립지사들 묘역 앞에서 다시 한 번 우리 선조들이 꿈꿨던 온전한 민주공화국의 완성을 위해 매진해갈 것을 다짐한다"고 전했다.

독립운동가 나창현 선생의 후손 나중화 광복회 부회장은 "독립운동은 현재의 남한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다. 완성된 한반도의 대한민국을 다시 찾기 위했던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상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한 결실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나 부회장은 "통일 조국이 돼야 여기 계신 모든 분의 명복을 빌 수 있다"며 "하루빨리 통일이 돼 온전한 한반도의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바른미래, 민주·한국당에 ‘국회정상화’ 촉구

바른미래당은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개점휴업 사태 방치해 민생법안과 주요 현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두달 가까이 공백이다. 이 상태를 만든 양당을 지켜보지 않으면 정상

되고 있다. 피해는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며 "국회 문을 두드릴 때 내놓은 채 김경수 구하기에 여념없는 민주당, 당대표 뽑는다며 온갖 막말 퍼레이드하는 한국당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태특위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오신환 사무총장은 "이중적

친 독립유공자 선정 의혹, 공직자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법안 제정의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재위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언발 임명됐는데 아직 한번도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1월 보이콧 배경에는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와 연관이 있는데 적자부채 발행과 연관된 압력 등 문제는 제대로 따질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환노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이 국회로 넘어왔음에도 논의하지 못하는 것을 규탄했다.

그는 "지금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정부가 유일하게 협조적인 한노총을 의식해 임장 미루는 형국이고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했지만 도입요건 등에 대해 손대지 못했다. 이런 문제들을 철차적으로 국회에서 깊이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전대 감싼 탄핵 논란...김병준 “黃, 여러 방안 마련하지 않겠다”

김준교 '막말' 징계는 즉답 피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전당대회 과정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계파 논란, 탄핵 책임론이 불거진 것을 두고 "이왕 출마를 했으니 후보 당선해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황 전 총리 출마 시 '친박·탄핵 프레임'에 갇혀 당이 내년 총선에서 수세에 몰릴 것이라는 자신의 예전 발언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공감하고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김준교 최고위원 후보의 "저만 게 대통령", "중북 문제인 탄핵" 등 막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선관위원장

님이나 부위원장에 여쭙달라"며 "선관위가 내린 결정에 대해 비대위 원장이 의견을 말하거나 입을 대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제가 오늘 연설회장에서 인사말씀으로 할 것도 있고 해서 (지금) 바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언급해 막말 논란으로 인한 전대(全大) 역(易)전반선회(轉轉)에 대해 우려감을 내비칠 것으로 보인다.

적 모습이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교섭단체 1당과 2당이 보이콧을 공조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언행까지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소속 의원들도 각 상임위 차원에서 시급한 법안들을 언급하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교육위 위원장인 이찬열 의원은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아수업을 복구하는 법안 처리와 관련, "국회

이 고 뻔뻔한 정부 집권여당과 후안무치한 한국당으로 인해 국회가 계속 파행되고 있다"며 "검경개혁소위는 지난달 15일 6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사태특위를 비롯한 6개 특위 연장 운영에는 열세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실망시키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무위 간사인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입시회를 통해 손해된 부

“민생법안 산적한데 국회 두 달째 마비”
“집권여당, 제1야당 부끄러운 줄 알아야”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길 5

광산구 Together 광산구